

## 다산·초의·추사가 꽃피운 조선시대 茶 문화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정민 지음



제다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스물네 살 때 당시 마흔 여덟이던 다산을 찾아가 차를 배운 초의는 잠시 ‘동다송’을 통해 차의 역사와 우리 차의 효용, 그리고 차를 마시는 절차와 방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전다박사’(煎茶博士)로 불린 초의의 존재를 더욱 빛낸 것은 바로 추사 김정희. 초의차를 접하고 단번에 매료된 추사는 초의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차를 얻는데 몰두했다. 우리 차 문화의 중흥을 이끈 세 선인의 차 사랑 실체를 밝힌 정 교수는 그동안 차 문화와 관련된 저술에서 반복되어 온 오류도 바로잡고 있다. 가령 다산의 말로 자주 인용되는 “차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술 마시는 민족은 망한다”(飲茶興 飲酒亡)는 말은 다산의 저술 어디서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 또 대표적인 차 고전인 ‘동다송’의 경우 각 구절 밑에 각주를 단 것을 단락표시로 착각해 17송 또는 31송 하는 식의 오해가 생겼는데 저자는 “이는 실명의 편의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고 초의 자신의 원래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추사의 글씨로 전해온 ‘명선’(茗禪)에 대한 위치 논란에 이의를 제기하며 오히려 추사의 대표작으로 주목했다. 끝으로 정민 교수는 ‘차학’을 전공하는 전문인의 양성이 시급함을 이야기하며, 우리도 중국에서처럼 우리 차 문화사를 종합하는 전망을 수립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원문을 부록으로 실어 가독성을 높였고, 상세한 연표는 차 문화사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의 박물관과 개인 소장가들에게서 구한 다채로운 도판도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영사·3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 다자로 불린 차 화로는 초당 앞 돌에 불타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내 가슴 속 이야기를 풀어내다... ‘산’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별아 지음



40년 동안 전형적인 ‘평지형 인간’으로 살아왔다는 그녀. 트레킹의 여신으로 꼽히는 안 나푸르나 관문 포카리에 일주일간 머물면서도 산에 오를 생각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그녀. ‘그런데 그녀는 왜 산에 오를 걸까?’ ‘미살’의 작가 김별아가 백두대간 종주기를 떠났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게 ‘산행기’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신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김별아 치유의 산행’이라는 부제가 알려주듯 그녀가 ‘산’이라는 곳에 오르며 용기 내 가슴 속 이야기를 풀어내고 거기서 반성과 성찰의 과정에 이르는 예에 성격이 더 강하다. 저자는 아들이 다니는 분당 이우학교 백두대간 중주반과 함께 지난 2010년 3월 전북 남원 고남산에 오르며 ‘경력 1년의 초보 산꾼이자 얼치기 대간꾼’이 되었다. 2년간 총 40차 산행으로 예정된 백두대간 종주 가운데 이번에 실린 글은 고남산에서 시작된 2010년 3월의 첫 산행에서부터 봉화산·백운산·영취산·속리산·석교산 등을 오르는 모두 16차례의 산행 기록이다. 그녀는 광활한 허벌지와 시린한 무릎을 두들기

고 세네카의 ‘우리는 평생토록 사는 방법을 배우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산에 올랐고, 책에는 첫 산행의 들뜸과 두려움, 빗속의 지리산 산행, 초췌히 바위가 인상적이었던 속리산 등 산행기가 실렸다. 살아가는 모든 일에 너무 익숙해졌다고 느껴져 느닷없이 산행을 택했던 그녀는 특히 산에 오르며 곁에서 보이는 누가봐도 ‘엄친딸’이었지만 속으로 상처 투성이었던 어린시절과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살아가는 고민들을 드러낸다. 또 함께 산에 오른 이들의 사연과 좌절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자신을 돌아본다.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지기’, ‘관계 그리고 상처’, ‘실패가 주는 자유’, ‘사랑, 거어어 포기할 수 없는’ 등 각 장(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고 아파왔을 문제들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기도 하다. <예코의 서재·1만30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 지적 거장들의 흔적... 그 흔적을 따라 떠나는 길

**‘길 위의 인문학’**

구효서 외 지음



그대로 따라 가는 일은 시공을 초월해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2부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길 위의 인문학이다. 이제는 그 모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성곽, 배라와 평양방송의 추억이 있는 강화, 병자호란의 아픔이 배어 있는 남한산성 등 이제는 아련해진 기억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역사를, 지난 시절 우리네 삶을 되돌아본다. 필자로는 박종기·신창호·이이화·전우용·최석기·한명기·황병기 등의 내로라하는 학자와 구효서·김도연·함승원·함성호 등 문인들이 출몰했다. <경향미디어·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리나라 지식사의 거장과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길과 강을 따라가며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 인문학을 조명한 ‘길 위의 인문학’이 출간됐다. 책은 지난해 인문학 대중화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강연과 답사의 결과물이다. 책은 크게 ‘사람의 자취를 따라’와 ‘역사의 흔적을 따라’ 두 부분으로 구성했다.

사람의 자취를 따라 떠나는 인문학인 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 거장들의 흔적을 찾아 떠난다.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과 신사임당, 허균에 이르기까지 문학, 역사, 철학 등 학문의 중심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그들의 삶과 기록들을

## ‘값싸고 맛있는’ 냉동피자·가공식품 이면엔

**‘피자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파울 트롬머 지음



수입하는지, 유전자기술과 화학 기술, 각종 보조금, 무역장벽, 패스트미디어 광고 등이 피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냉동피자 한 판에서 건강과 환경, 경제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이 책은 피자를 매개로 했지만 결국 자국적인 맛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현대인의 밥상을 점령해버린 ‘가공식품’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 ‘육류 섭취를 줄여라’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라’와 같은 조언을 전하는 저자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해법도 무엇보다 ‘소비자의 의식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더난·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식품코너를 가득 메운 인스턴트식품,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오스트리아의 경제전문기자 파울 트롬머가 쓴 ‘피자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는 우리가 먹는 냉동 피자의 생산과정을 추적하며 ‘값싸고 맛있는’ 가공식품의 이면엔 담긴 진실을 파헤친 책이다.

냉동피자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궁금했던 파울은 냉동피자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의 경로를 추적한다. 미국에서 거대 목벌 거래업체를 만나고, 이탈리아에서는 아프리카 출신의 토마토 수확 노동자를, 독일에서는 파업중인 우유 생산 농민을 만난다. 저자는 어떤 나라에서 밀과 토마토, 치즈, 살라미를

## 실종 미스터리 ‘밀레니엄’ 시리즈 완결판

**‘벌집을 발로 찬 소녀 1, 2’**

스티그 라르손 지음



산이 깨부순다. 리스베트가 명명한 ‘모든 악’의 실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여주인공의 삶을 지키기 위한 두뇌 싸움을 통해 현대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심도있는 조망 등을 폭넓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자신에게 덮여 씌워진 치욕적인 오명과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이는 박진감 넘치는 법정 공방은 1부와 2부에서 그랬던 감동을 더해 주고, 강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한편, 1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은 올해 12월 ‘세븐’의 데이비드 핀치 감독, 다니엘 크레이그, 루니 마라 주연으로 영화화될 예정이다. <문학대외선 뿔·각 권 1만4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2005년 스웨덴에서 1부가 발간된 이후 전 세계 46개국에서 5000만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밀레니엄’ 시리즈의 완결판 ‘벌집을 발로 찬 소녀 1, 2’가 출간됐다. 스티그 라르손이 쓴 이 시리즈는 드래곤 타투를 한 여성 해커 리스베트와 잡지사 ‘밀레니엄’의 기자 미카엘이 제법가 손녀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물이다. 3부는 ‘밀레니엄’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대단원이자 클라이맥스로 그동안 공권력이라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과 비밀조직의 부정부패를 낚아챌수록 더 거대해져 감 넘치는 수사 추적의 통쾌한 여운을 그려주었다.

### 신간

- ▲깊은 인생=변화 경영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구본형의 자기 계발 서적이다. 평범한 삶이 특별한 삶으로 바뀌는 일곱 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간디, 체 게바라, 스피노자, 처칠, 니체 등 삶의 전환점을 극적으로 경험한 일곱 명의 이야기를 통해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비범한 삶을 꿈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휴머니스트·1만3000원>
- ▲소란한 보통날=‘냉정과 열정 사이’ 등을 쓴 일본 에쿠니 가오리의 가족소설. 아빠와 엄마, 딸 셋과 아들 하나로 구성된 미야자카 집안의 가족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다. 겉보기에는 화목하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지만 가족에게도 풍파는 있다. 시집간 큰딸이 이혼하고 돌아오고, 둘째딸은 임신한 동료 여직원의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가족은 상처를 서로 감싸 안으며 삶의 이유를 얻는다. <소담출판사·1만2000원>
- ▲런던통신 1931~1935=철학자이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문필가였던 버트런드 러셀(1872~1970년)이 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을 엮은 것이다. 러셀의 사후 1975년에야 처음으로 책으로 출간됐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대공황의 시대에 쓰인 135편의 짧은 에세이를 통해 때로는 진지하게, 때론 위트 넘치게 세상을 읽어낸 러셀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사회평론·1만4800원>

### 신불산

- ▲신불산=영남 알프스 빨치산 구원철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구제는 1930년 양산출생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전쟁을 맞이하면서 신불산으로 들어가 빨치산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소설가 안재성씨가 구제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해방과 더불어 벌인 빨치산 투쟁, 1954년 체포된 이후 20년 간의 감옥 생활과 출옥 후 살아온 과정 등을 재구성했다. <산지니·1만3000원>
- ▲미술관에 사는 나무들-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나무 관련 책을 여러 권 펴낸 강판권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산수화 속에 등장하는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산수화 속의 주인공은 나무라는 관점을 바다에 깔고, 그 나무를 그린 이의 의기와 식견, 학문을 추적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에서는 복사나무를, 중국 화가 곽희의 ‘조춘도’에서는 기암절벽 속 소나무를 발견하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휴먼출판·1만4000원>
- ▲수나의 수학카페 1=역사, 사회, 문화,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속에서 수학을 풀어냈다. 인도말로 ‘베어있음’을 뜻하는 ‘수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저자는 ‘수학으로 통합적 사고하기’를 제안한다. 수학의 기본 재료인 수(數)를 다룬 1권에 이어 수확사, 계산, 도형, 기하학, 수학의 지형도를 다룬 책들이 추가로 출간될 예정이다. <구리·1만5000원>

### 뱀이 좋아=제11회 보림창작그림책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황숙경씨의 첫 그림책. 뱀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집에서 기르고 싶어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렸다. 작가는 작가의 딸이 어린 시절 납땀이 싫어하는 뱀을 좋아했던 점을 떠올리며 책을 구상했다고 한다. <보림·9800원>

### 우리 역사가 숨쉬는 7가지 탈 이야기=빙긋빙긋 하회탈, 울릉볼볼 봉산탈, 발에 쓰고 노는 발탈까지 탈 하나하나의 우리 조상들의 삶과 바람이 녹아있다. 각 탈이 가지는 의미, 탈놀이가 담고 있는 주제, 탈에 얽힌 유래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어린이작가정신·9500원>

### 삼식이 뒤로 나가! =선안나씨 연작동화집. 호기심 많은 까마귀 ‘가옥이’와 말쑥쟁이 아이 ‘삼식이’의 유머 넘치는 대결을 다뤘다. 농사를 망치는 새로 오해 받아 억울한 까마귀와 새를 미워하는 아이의 광광한 대결이 웃음을 자아낸다. 고희출 김병하씨가 그림을 그렸다. <창비·8500원>

### 강은 세상을 만들어요=지식그림책 ‘공부하고 놀자의 두 번째 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강의 모든 것을 산뜻한 수채화풍의 그림에 담아 소개한다. 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와 함께 강을 살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학교재·9500원>

### 새미와 푸리=이경화씨의 동화. 어느 날 새미 요양원에 나타난 요정 푸리. 무엇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 자신감도 없고, 인기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새미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라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담았다. <바람의아이들·7800원>

### 방정환-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 이야기꾼=역사 공부에 되는 위인전 시리즈의 열 번째 책.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의 생애를 다뤘다. 잡지 ‘어린이’를 만들고, 이야기와 노래 없이 자라던 아이들을 위해 동화와 동요를 만들어 들려주었던 그의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해와나무·9500원>

### 어린이 책꽂이